

몽골 이주노동자들의 결혼 불안정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고립, 스트레스와 대처유형, 종교단체의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

신 성 자*

논문초록

이주노동자들의 노동력에 대한 한국산업체의 의존도가 증가와 함께, 본 연구는 가족과 분거생활을 하는 기혼이주노동자들의 결혼불안정성 문제와 관련요인들을 파악하였다. 서울과 부산, 인천, 대구, 대전, 안산, 평택, 청주, 구미, 목포 등 10개 도시에 거주하는 재한 몽골 기혼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표본(N=167명)을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 재한 몽골 기혼이주노동자들의 결혼불안정성에 대한 진단과 이들의 결혼불안정성(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유의미한 관련요인들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부가하여 종교배경별 결혼불안정성 및 사회적 지지수준을 비교분석하였다. ‘사회적 고립감’, ‘스트레스’, ‘긍정적 대처’, ‘부정적 대처’, 그리고 종교단체로부터의 ‘사회적 지지’ 등 5개의 주요독립변수와 ‘성별’, ‘연령’, ‘학력’, ‘체류기간’, ‘체류자격’ 등 5개의 통제변수를 투입하여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재한 몽골 기혼이주노동자들 세 명 중 한 명 이상이 결혼해체 위험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재한 몽골 기혼이주노동자들의 ‘사회적 고립’(odds ratio, 2.075), ‘사회적지지’(,889), ‘성별’(,490), ‘연령’(,437), ‘체류기간’(1.742)은 결혼불안정성에 유의미한 관련이 있음이 실증적으로 입증되었다. 결혼불안정성에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종교배경별 결혼불안정성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지만, 기독교인들이 타종교 또는 무교인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서적 지지를 더 받고 있는 경향이 있어, 기혼 이주노동자들의 결혼불안정성을 감소시키는데 교회의 역할의 중요성을 시사해주었다. 이주노동자들의 가족결합권을 허용하는 정책의 필요성과 기혼 이주노동자들의 결혼해체를 예방하기 위한 실천방안을 모색하였다.

주제어: 결혼불안정, 사회적 고립감, 사회적지지, 스트레스, 대처유형, 종교단체, 교회, 분거부부, 이주노동자, 몽골

*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12년 8월 13일 접수, 9월 10일 최종수정, 9월 24일 게재확정

I.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980년대 후반부터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유입되기 시작하였다(설동훈, 1996:3). 한국에 몽골 노동자들이 들어오게 된 것은 1995년 500명의 산업연구생으로 파견되면서 시작되었다(미지도칠 오통도람, 2011:2).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네팔, 필리핀 등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에 비해 몽골 이주노동자들의 한국노동시장 유입시기는 약 10년가량 늦은 편이다(몽골대사관 자료, 2010). 한국노동시장에 일찍 들어와서 이미 자국민들 간의 자치조직(필리핀 공동체, 네팔 자문위원회, 방글라데시 협회 등)을 구축한 이주노동자들에 비해, 후발주자인 재한 몽골 이주노동자들은 아직 사회적 연계망과 지지체계가 약한 편이다(신성자·이원준, 2012:3). 재한 몽골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몽골인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의 교회 및 사찰 그리고 몽골식당 등(미지도칠 오통도람, 2011:4)을 중심으로 사회관계망(social network)이 형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재한 몽골인들은 약 3만 명에 불과하지만, 이 숫자는 전체몽골인구(약 270만 명)의 1.1%를 능가하고 있고(람후 몽크나룻·진미정, 2010:32), 이들에게 의존하며 생활하고 있는 본국의 가족 구성원들의 숫자를 함께 고려해 볼 때, 이들의 삶이 몽골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결코 적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신성자·이원준, 2012:3).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한국 노동자들이 기피하여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3D 업종의 산업체에서 일하고 있다. 이들은 국내노동시장에서 고유영역을 확보하고 산업생산 활동의 한 부분을 담당하며, 한국사회에서 저변계급(under class)로 자리 잡고 있다(설동훈, 1996:3-4, 최재윤, 국가인권위원회, 2011. 10:305 재인용). 우리정부는 이주노동자에게 배우자 및 자녀 동반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재한 기혼이주노동자들이 배우자 및 자녀와 상당기간 동안 헤어져서 생활을 해야 한다. 이는 국내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이주노동자들의 정주화를 예방하기 위한 우리정부의 정책에서 비롯된다. 이주노동자들의 노동력과 경제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이주노동자들의 가족결합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1.10:90). 람후 몽크나룻·진미정(2010:36)은 이주노동자 부부의 분거기간이 증가할수록 부부관계가 불안정해진다는 사실을 피력 바 있다. 몽골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바야르마(2008:49)¹⁾도 ‘체류자격’문제 다음으로 ‘결혼생활’이 재한 기혼몽골이주노동자들에게 심각한 문제임을 밝혔다. 최근 몽골사회

의 이혼율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²⁾ 특히 해외 이주노동자의 결혼파탄(marriage break-up)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Kh. Gundsambun, 2007; 람후 몽크라롱·진미정, 2010:32)로 대두되고 있다. 경제적으로 보다 안정되어 가족과 함께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선택한 이주노동자의 삶이, 자신의 결혼생활을 해체하게 하는 위험요인이 되는 현실은 아이러니(irony)이기도 하다.

해외 이주노동자 부부의 결혼해체문제를 우려한 몽골정부는 대한민국정부에게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하는 사람들의 경우 가족 단위로 유입시켜 줄 것을 제안한 바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람후몽크라롱·진미정, 2010:33).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이 1990년 12월 18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2003년 7월 발효되어 많은 국가들이 서명하였지만, 3) 대한민국은 비준하지 않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1, 10:87). 기혼 이주노동자들의 가족결합권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정부의 정책방향은 세계인이 함께 성장하고 공존해 나가야 하는 글로벌 시대의 지향점과 역행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에게 부부 및 자녀와 분거생활을 강제하는 우리정부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정책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지지는 이주자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데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
- 1) 바야르마(2008)의 연구(조사대상자, 몽골노동자 170명)는 제한 몽골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생활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11가지)은 언어 및 의사소통(2.5점), 경제적 이유(2.5), 건강(2.4), 결혼생활문제(2.3), 주거(2.3), 기후(2.2), 문화적 차이(2.2), 음식(2.1), 의복(2.1), 브로커 착취(1.8) 순이었다(5점 척도). 조사대상자들 중에서 해당사안에 적용되는 표본(예: 기혼자, 94명; 불법체류자, 74명)을 토대로 재분석한 결과, 응답자들 중에 약 30.9%가 '결혼생활문제'를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운 문제로 지적하였다. 이것은 '언어 및 의사소통'(23.5%)보다도 훨씬 더 높은 비율이다.
 - 2) 몽골(인구 약 270만)의 수도 울랑바타르(Ulaanbactar)를 포함하여 22개도에서 2010년 9349명 쌍이 결혼하였고, 3054쌍이 이혼을 하여 결혼건수 대비 이혼건수의 비율은 약 32.7%이다. 결혼건수 대비 이혼건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다르항(Darkhan)으로 51.25%이고, 가장 낮은 곳은 알항가이(Arkhangai)로 약 4.9%이었다. 결혼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수도인 울랑바타르로 3033쌍이고 이혼건수는 1631건(41.5%)이었다. 결혼건수가 가장 적은 곳은 거브숨베르(Gobisumber)로 39건이었고 이혼건수가 19건(48.7%)이다. 지역에 따라 결혼건수 및 이혼건수 비율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몽골통계청, National Statistic Commission of Mongolia, 2003-2010). 지역에 따라 결혼건수 및 이혼건수 비율의 차이가 크지만, 전반적으로 몽골사회에 이혼이 심각함을 확인 할 수 있다.
 - 3) 2011년 7월 통계자료에 의하면, 45개국에 비준하고 31개국에 서명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11.10:87).

미친다는 사실은 여러 선행연구(Noh & Avison, 1996, Goodwin & Plaza, 2000, Berry, 1987, 김선화, 2005:47 재인용)에서도 논의되어 왔다. 강제된 분거생활을 해야 하는 이주노동자들은 가족으로부터 지지를 받는데 한계가 있다. 분거생활이 길어지면서 배우자와의 정서적 유대가 약해질 경우, 이주노동자들이 느끼는 사회적 고립감은 심화될 수 있다. ‘사회적 고립감’은 ‘개인기능’(김희년·정미숙, 2004; Adams et al. 2004; Andersson, 1998; Fees et al., 1999; 박연환·강희선, 2008) 및 ‘가족 기능’(김옥수·백성희, 2003; 박연환·강희선, 2008)을 저하시키는 위험요인이다. 기혼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느끼는 사회적 고립감과 스트레스로 인해 겪는 심리적인 어려움이 증가할 수록, 배우자와의 정서적인 ‘친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도 저하되기 쉽다. 이러한 악순환이 지속될 경우 이주노동자들의 ‘결혼불안정성’(marital instability)은 증폭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주노동자들의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제도 및 정책변화에 대한 요구는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정책이 변화되기만을 기다리면서, 당장 도움이 필요한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직접 개입 서비스(direct service) 및 지원의 중요성이 간과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기혼이주노동자들이 한국생활에서 느끼는 사회적 고립감, 근로의식,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한 스트레스, 그리고 결혼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겪게되는 어려움을 경감시켜주고, 이들의 사회기능(social functioning)을 회복·향상시킬 수 있는 원조개입은 시급한 과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그것은 단지 인권보호 차원에서만 아닌 경제적 효용성 측면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이미 이주노동자들의 노동력에 대한 우리나라 산업체의 의존도는 상당히 높다. 이들의 심리적 안녕감은 양질의 노동력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이들이 우리사회에 잘 적응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측면이기 때문이다.

몽골은 불교신자가 다수인 나라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몽골인들 중에는 상당수가 불교사찰이 아닌 몽골인들을 지원하는 지역의 교회에 다니고 있다. 몽골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와서 교회를 나가게 되는 중요한 동기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관심보다도 오히려 몽골인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가면 동포들과 몽골어로 의사소통을 하며 교류할 수 있고, 교회를 통해 정서적 지원 및 물질적 지원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지지체계가 약한 제한 몽골 이주노동자들에게 교회, 사찰 등 종교집단에서 지원하는 지지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중요한 사회적 지원이 될 수 있다. 선행연

구는 사회적 지지가 이주노동자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김선화, 2005:47, 장세진, 1992). 종교단체로 부터의 지지는 장기적인 분거생활을 해야 하는 이주노동자 부부의 심리적인 어려움, 한국사회에서 이방인(異邦人)으로서 느끼는 사회적 고립감, 스트레스 및 결혼불안정성 등을 감소시키는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으로 작용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지금까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국내연구는 직장 및 일상생활 실태 및 적응 등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었으며, 이주노동자들의 결혼불안정 문제를 탐색한 연구는 단 한편(람후 몽크나룽·진미정, 2010)에 불과하다. 람후 몽크나룽·진미정(2010)의 연구는 강제된 분거생활을 하는 기혼 이주노동자들의 결혼해체의 위험성을 강조한 바 있다. 12명의 몽골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 질적 연구는 이주노동자들의 결혼문제를 탐색한 개척연구로서 그 의의가 매우 크지만 발견점의 일반화에 한계점을 가지 있어, 결혼불안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체계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실증적으로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재한 몽골 기혼이주노동자들의 ‘사회적 고립감’,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유형’과 ‘종교단체에서 지원하는 지지수준’ 등이 이들의 결혼불안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밝히고, 이들의 결혼불안정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유용한 실증적 자료를 얻는데 목적을 둔다.

II. 선행연구 고찰

1. 이주노동자부부의 분거생활 결혼불안정성

분거생활을 하는 부부들이 본국에 있는 배우자와 정서적 유대가 약화될 경우,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생활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고립감은 심화될 것이다. 인터넷의 발달로 분거생활을 하는 가족원들 간에 매우 편리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지만, 사이버공간에서 소통에는 한계가 있다. 람후 몽크나룽·진미정(2010:44)은 분거기간이 길어질수록 분거생활이 견디기 어려워지고, 이주노동자들은 현재 생활과 배우자와 가족에 대한 불만이 쌓이는 경우가 많아지고, 경제적 문제, 성적인 문제 등이 누적되면서 갈등과 긴장도 커지는 현상이 있음을 피력하였다. ‘가족동거’유무와 외국인 근로자의 ‘심리적

안녕'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다는 윤영희(2011:80)의 연구결과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친밀감은 부부관계유지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정서다(Greenbert & Johnson, 1986, Magolin & Weinstein, 1983, 윤미혜·신희천, 2009 재인용; 김양호·김태현, 2009:322).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결혼문제 및 결혼 불안정을 탐색한 연구가 드물어, 대안으로 분거목적에서 차이는 있지만 기러기 부부를 대상으로 한 수편의 질적 연구를 토대로 분거부부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김양호·김태현(2009:317)은 물리적 시·공간적으로 부부가 함께 하지 못하는 분거생활은 '부부의 공감대' 및 '친밀성' 형성 및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상호 간에 친밀감을 형성할 근거를 제공하지 못하여, 시간이 갈수록 부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감대를 상실해 간다고 밝혔다. 기러기 아빠들은 성문제를 분거생활 중에 가장 힘든 문제로 밝히고 있다(최양숙, 2006). 부부의 성생활은 상호관계를 유지하고 그들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는 부부관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박부진, 2004; 이성은, 2006; 김양호·김태현, 2009:316 재인용), 분거생활이 강제된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구조적으로 부부가 원활한 성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분거생활이 장기화 될수록 성적 욕구의 좌절로 인한 부부갈등이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다. 부부간의 장기적인 분거는 부부 간의 신뢰감을 약화시킨다(김양호·김태현, 2009:318). 특히 부부 간의 성적 배타성과 관련하여 배우자의 성적 외도에 대해 의심하거나 또는 암묵적으로 수용하는 행태는 부부간의 신뢰의 부재(김양호·김태현, 2009:318)의 한 단면이기도 하다. 종합하면, 부부의 분거생활이 길어질수록, 정서적으로 소원해져 부부간의 친밀감 문제, 성적 문제, 신뢰감 부재 등이 야기되어 부부관계를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강제된 부부 분거생활을 해야 하는 재한 기혼 몽골 이주노동자들을 결혼불안정의 위험성에 크게 노출된 위험집단(risk group)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들의 결혼불안정 수준을 진단하고, 관련요인을 규명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시도라고 생각된다.

2. 사회적 고립, 스트레스 및 대처유형과 결혼불안정성

한국사회에 잔존하는 순혈주의와 문화적 배타성(설동훈, 2001; 김신정·이순희·김숙영·김애리·박현태·이영주, 2008: 792)은 한국인들이 이주노동자들에게 편견 및 차

별적인 시각을 갖게 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지각한 차별감’은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영희, 2011:80).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한국인들의 차별적인 태도는 언어와 문화가 다른 타국에서 생활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소외감 및 고립감(isolation)을 가지게 한다. 이주노동자들이 사회적 고립감과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심리적 기능수준이 떨어질 경우, 본국에 있는 배우자와의 정서적 유대감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도 저하될 것이다. 김경화(2010:221)는 기러기 어머니들이 ‘고립감’, ‘무능감’, ‘불안감’을 느끼면서 자신의 ‘존재의 위축’감을 피력하였다고 밝힌 바 있는데, 배우자와 장기간 분거생활을 해야 하는 기혼 이주 노동자들도 이와 유사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사료된다. ‘동거형태’와 ‘사회적 고립’ 간에 유의미한 관련성(Savikko et al, 2005, 박연환·강희선, 2008:713 재인용)을 보고한 선행연구는 부부가 분거생활을 하는 기혼 이주노동자들이 사회고립감에 취약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배우자와 장기간 분거생활로 인한 부부의 유대감 약화와 외로움은 언어와 문화가 다른 타국에서 이주노동자로서 느끼는 지각된 차별감과 함께 제한 기혼 이주노동자들에게 한층 더 사회적 고립감을 갖게 할 수 있다. ‘사회적 고립감’은 ‘외로움’, ‘우울’과 상관이 높고(박연환·강희선, 2008:717), 기능상태 저하(Victor, et al, 2000) 및 가족기능 저하(Kim & Baik, 2003)등을 초래한다(박연환·강희선, 2008:713 재인용)는 사실을 인식할 때, 이주노동자들의 ‘사회적 고립감’은 사회 심리적 적응을 저해하는 위험요인(risk factor)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열악한 작업환경뿐만 아니라, 한국인들과의 근로의식에서의 차이로 인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한 몽골이주노동자들은 작업장에서 요구하는 빠른 작업속도에 대한 부담을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바야르마, 2008:49). 높은 효율성과 생산성을 강조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부추기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그다지 익숙하지 않은 몽골 이주노동자들은 무력감을 느끼기 쉽다. 이주현·김혜숙·신희천·최진아(2011:88)의 연구에 의하면, 제한 이주노동자들은 본국에서의 노동에 비해 노동시간 및 강도에서 훨씬 힘든 ‘고역’을 감당하여야 하는 어려움과, ‘빨리 빨리’를 강조하는 ‘노동속도’와 무슨 일이 있어도 해내야 한다는 한국인들의 ‘노동철학’에 대한 심리적 부담과 갈등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김시연·서영석(2010:189)은 행위자(actor)와 파트너(partner)의 상호작용모델(APIM)에 기초하여 부부의 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는데, 스트레스

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배우자)효과는 남편과 아내 모두 유의하였다. 남편과 아내의 스트레스는 배우자 지지를 매개로 상대 배우자의 결혼만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 연구결과를 통해서 재한 기혼 이주노동자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고립감 및 스트레스는, 자신이 지각하는 부부관계는 물론, 배우자가 지각하는 부부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선행연구(Ennet & Bauman, 1993; Ennet et al., 1999; 박바름·김석호·김병수, 2011:185)는 ‘사회적 고립감’이 ‘문제음주’(problem drinking), ‘약물사용’, ‘높은 흡연’, ‘성적 비행’ 등의 사회일탈적 행위와 유의미한 관련성을 있음을 피력한 바 있다. ‘인식된 유대감’은 일탈행위를 억제한다(박바름·김석호·김병수, 2011:177)는 사회통제 이론적 관점(Hirschi, 2002)에서 보면, 기혼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생활에서 사회적 고립감을 많이 느끼고, 본국에 있는 배우자와의 정서적 유대가 약해질 경우, 이주노동자로서의 고된 삶을 살면서 겪는 스트레스 대처를 건전한 방법(예: 친교, 취미생활, 운동 등등)보다는 부정적 또는 일탈적 형태(예: 음주, 흡연, 약물복용, 폭식, 폭력 등)로 표출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음주는 스트레스원에 대한 긴장감소(Cooper, 1992, 손애리, 2001, 2010:63) 또는 긴장완화(Conger, 1956, Brown et al., 1987; Brown et al., 1980; Greenley & Oei, 1999, 이민규, 1993; 박경민·이민규, 2005; 서경현·김성민, 2009)를 하기 위한 대처양식이기도 하다. 특히 문제음주(problem drinking)는 부부관계를 불안정하게 하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음은 여러 선행연구(김상대·송석훈·이상진·하태영·Kuan-Pin Lin, 2011, 이수영, 2006:114 재인용)에서 논의되어 왔다. 이주노동자들의 스트레스 대처 양상이 부정적 또는 일탈적인 성격을 지닐수록, 사회기능(social functioning)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배우자와 분거생활을 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사회기능수준이 저하되면, 본국에 있는 배우자와의 정서적인 유대관계를 잘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떨어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의 결혼불안정성은 증대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생활에서 기혼 이주노동자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고립감’,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 등을 기혼 이주노동자들의 ‘결혼불안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관련변인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3. 종교단체의 사회적 지지와 이주노동자의 결혼불안정성

여러 선행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이주자의 적응을 촉진시킨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Lin et al., 1979; Kuo & Tsai, 1986; Avison & Turner, 1988; Dorais, 1991; Ward & Kennedy, 1993; Montgomery, 1996; Griffin & Soskolne, 2003; 정기선, 1996; 2003; 김은정, 2001; 이인선, 2004; 박형기, 2004; 홍진주, 2004, 정은희, 2005:27). 이주노동자들의 사회적 관계의 질이 양호할 경우, 심리적으로 건강(Griffin & Soskolne, 2003)할 수 있고, 우울수준(Kuo & Tsai, 1986:145)도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정은희, 2005:27).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개인의 안녕(well-being)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다(Cohen & Wills, 1985, 최미영, 2003:25).

사회적 지지는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서 제공되어 지는 모든 물질적, 심리적 도움을 의미하는 것이다(Cobb, 1976). 사회적 지지를 받으면, 개인은 돌봄을 받고, 존중되며, 의사소통과 상호적 의무의 망에 소속된다(Cobb 1976, 최미영, 2003:25). 한국노동시장에의 유입시기가 비교적 늦은 몽골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선발주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계망이 약한 편이다. 몽골이주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지역의 교회 및 사찰은 제한 몽골 기혼이주노동자들에게 중요한 사회적 지지체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Cohen과 Heberman(1983)은 사회적 지지를 개인의 필요한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해 얻을 수 있는 애정, 관심, 문제해결을 위한 조언, 자신에 대한 인정과 같은 긍정적인 행동이나 행위로 설명하였다(Cohen & Hoberman, 1983:393-403). 사회적 고립감과 스트레스는 개인의 불안 및 우울수준을 높이고 가족기능도 약화시킬 수 있는 위험요인이다. 종교단체로부터 지원되는 양질의 사회적 지지가 이주노동자들이 느끼는 사회적 고립감 및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의 교회 및 사찰 등 종교단체들이 제공하는 정서적, 물질적, 평가적 지지는 제한 몽골 기혼이주노동자들이 한국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높여주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어려움과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이 높아지면 배우자와 분거생활을 하면서 파생될 수 있는 결혼불안정성 문제에도 보다 더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종합하면, 제한 이주노동자들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사회적지지 수준은 제한 몽골 이주노동자들의 결혼불안정을 감소시키는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정을 도출해 볼 수 있다.

부가하여, 종교를 가지지 않은 제한 몽골이주노동자들의 경우에도 종교단체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는 있지만,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무교인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종교를 가진 경우에도 자신의 속한 종교단체(교회, 사찰 또는 기타)의 특성에 따라 지지수준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수준이 제한몽골 기혼이주노동자들의 결혼불안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면, 종교배경에 따른 종교단체의 지지수준도 함께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수준에서 제한 몽골 기혼이주노동자들의 종교배경(기독교, 불교, 기타종교, 무교 등)에 따른 사회적 지지수준 및 결혼불안정성도 함께 비교·분석해 보고자 한다.

4. 분거기간, 체류자격, 성별, 연령과 이주노동자들의 결혼 불안정성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는 ‘사회적 고립감’,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유형’ 그리고 ‘종교단체의 사회적 지지수준’이 배우자와 분거생활을 하는 이주노동자들의 ‘결혼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의 결혼불안정성에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변인들을 파악함에 있어서 결혼불안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의 영향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주노동자의 결혼불안정 관련 요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한 선행연구가 부재된 현실에서, 대안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삶의 질 또는 심리사회적 안녕감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이주노동자의 삶의 질 또는 심리적 안녕감은 이주노동자의 결혼불안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측면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들의 심리적인 안녕감은 여성이 남성보다 낮으며(윤영의, 2011:80), 근무기간이 3년 이상 길어질수록 사회적응 수준이 떨어지고(김현경, 2009, 김지선, 2006, 미칠도칠 오통도람, 2011:15 재인용), 합법체류자에 비해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의 삶의 질 또는 심리적인 안녕감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구은경, 2006, 정은희, 2005, 박형기, 2004, 윤정주, 2004, 미칠도칠 오통도람, 2011:15 재인용). 여러 선행연구(민성길·이창일·김광일·서신영·김동기, 2000; 구은경, 2006; 윤정주, 2004; 박황훈, 2002; 미칠도칠 오통도람, 2011)에서 ‘학력’은 삶의 질과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경매(2003:27)도 이주노동자들의 한국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우울 및 불안증상이 적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부가 분거생활을 해야 하는 기혼이주노동자에게도 적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의 정신건강은 부부의 결혼불안정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분거기간’(또는 체류기간)은 이주노동자들의 결혼불안정 연구에서도 고려되어야 할 변인이다. 마지막으로 이주노동자들의 건강 관련 삶의 질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연령’(김신정·이순희·김숙영·김애리·박현태·이영주, 2008:799)도 결혼불안정 관련요인 탐색을 위한 분석에서 통제 변인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종합·정리해보면, ‘성별’, ‘연령’, ‘학력’, ‘체류기간’, ‘체류자격’ 등 5개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을 통제변수로 설정하고, ‘사회적 고립감’,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유형’, ‘종교단체의 사회적 지지수준’이 배우자와 강제된 분거생활을 하고 있는 제한 몽골 이주노동자들의 ‘결혼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해 보고자 한다.

전술한 논의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제한 몽골 기혼 이주노동자들의 결혼불안정성, 사회적 고립감, 지각된 스트레스, 긍정적 대처, 부정적 대처, 종교단체로부터의 사회적 지지수준은 어느 정도 인가 ?

연구문제 2. 제한 몽골 기혼이주노동자들의 종교배경(기독교, 불교, 기타, 무교)에 따라 종교단체로부터의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수준 및 결혼불안정 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제한 몽골 기혼 이주노동자들의 ‘사회적 고립감’과 ‘지각하는 스트레스’ 수준은 ‘결혼 불안정성’과 정적 상관이 있는가 ?

연구문제 4. 제한 몽골 기혼 이주노동자들의 ‘결혼불안정성’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긍정적 대처’ 수준과는 부적 상관을 가지고, ‘부정적 대처’와는 정적 상관을 가지는가 ?

연구문제 5. 제한 몽골 기혼이주노동자들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사회적지지’ 수준은 ‘결혼불안정성’과 부적 상관을 가지는가 ?

연구문제 6. 제한 몽골 기혼이주노동자들의 ‘결혼불안정성’은 ‘성별’, ‘연령’, ‘학력’, ‘체류기간’, ‘체류자격’ 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

I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은 <표1>에서 제시된 내용과 같다. 본 연구조사를 위한 표본은 167명으로 서울(5명), 부산(14명), 대구(46명), 대전(19명), 울산(22명), 구미(10명), 안산(8명), 목포(16명), 청주(15명), 평택(12명) 등 전국 10개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몽골 기혼 이주노동자들이다.

<표1> 기혼 몽골 노동자의 일반적 배경 (N= 167명)

변수	항목내용	백분율	(%)
성별	남성	111	66.5%
	여성	56	33.5%
연령	20대 미만	13	7.8%
	20세 -30세 미만	113	67.7%
	30세 - 40세 미만	39	23.4%
	40세 -50세 미만	2	1.2%
	평균 연령	26.54 세	
체류기간	6개월	30	18%
	7개월 -12개월	17	9.9%
	13개월- 24개월	32	19.2%
	25개월 - 36개월	36	21.6%
	37개월 -48개월	29	17.3%
	49개월 이상	23	14%
	평균 체류기간	27.1개월	
체류자격	불법	28	16.8%
	합법	139	83.2%
학력	중졸 이하	11	5.4%
	고등학교	84	53.9%
	대학교	56	33.5%
	대학원	16	9.6%

변수	항목내용	백분율	(%)
종교	기독교	103	61.7%
	불교	18	10.8%
	무교	46	27.5%
임금	100만원 미만	34	20.4%
	100만원 - 130 만원 미만	60	35.5%
	130만원 - 160 만원 미만	59	35.3%
	160만원 이상 - 250만원	14	8.4 %
	평균임금	121만 3500원	

설문조사는 사전에 설문조사를 위한 협조요청에 응한 산업체들을 중심으로 전국 10 도시에 거주하는 재한 몽골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결혼배경(미혼, 기혼)과 상관없이 52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배부한 설문지 중에 498부가 회수되었는데 이중에 불성실하게 응답한 45부를 제외하였다. 그리고 설문지 내용 중에서 기혼자들에게만 응답을 요청한 일부 문항들(예: 결혼불안정성 척도문항)에 응답할 수 없는 미혼자(286명)이 응답한 설문지를 다시 제외시켰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에 사용한 최종 표본은 167명으로 모두 기혼자들이다.

몽골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차츠랄, 2003; 바야르마, 2008)의 표본 선정이 대부분 특정지역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이로 인한 표본의 편향성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전국의 주요 10개 도시에 거주하는 몽골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표본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응답자들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66.5%)이 여성(33.5%)보다 약 2배가 많다. 평균연령은 26.5세이며, 20대-30대(67.7%)가 가장 많으며 대부분 20대에서 40대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연령분포는 몽골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차츠랄, 2003; 바야르마, 2008)에서 밝힌 조사대상자의 특성과 매우 유사한 결과이다. 청장년의 남성이 많은 것은 주로 힘든 노역을 감당해야 하는 3D 업종 산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 재한 이주노동자들의 작업특성을 고려할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다. 대다수(94.6%)가 고졸이상이고 대졸이상도 약 33.5%가 되어 전반적으로 학력이 높은 편이다. 조사대상자 중에 약 27.5%만이 무교이고 다수 (72.5%)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몽골사회는 불교가 가장 대중적인 종교이지만, 본 조사대상자들의 종교는 불교(10.8%) 보다는 오히려 기독교(61.7%)가 압도적으

로 많다. 이는 이주노동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지역의 교회에 적지 않은 몽골이주노동자들이 합류하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2. 주요변수 및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는 ‘결혼불안정성’이고, 주요 독립변수(5개)는 ‘사회적 고립감’, ‘스트레스’, ‘긍정적 대처’, ‘부정적 대처’, 그리고 ‘종교단체의 사회적지지’ 등이다. 통제변수(5개)로 ‘성별’, ‘연령’, ‘학력’, ‘체류자격’, ‘체류기간’을 선정하였다.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들을 측정하는 도구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결혼불안정성

Edwards, Johnson, & Booth(1987:169)는 결혼파탄(marital break-up)을 진단하기 위해 14개의 결혼불안정지표(marital instability index)를 제시하였다. 이 척도는 이분형 척도이다. 14개 문항 중에서 0~2개(약14.3%)를 ‘예’라고 응답한 경우, ‘이혼경향성’은 22%이고, 3~4개(약 29%)는 26%, 5~6개(43%)는 31%, 7~8개(57%)는 43% 정도의 이혼경향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주노동자들의 결혼불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애인유무’를 묻는 문항 1개를 추가하여 15개 문항으로 척도를 구성하였다. 결혼불안정성 유무를 평가할 수 있는 이분형 척도(0, 1)는 점수(15개 항목수로 나눈 평균화한 척도점)가 1 에 가까울수록 결혼불안정성은 높아진다(표2). Cronbach’s α 계수에 의한 척도문항의 내적 일치도는 .89로 나타나 양호한 신뢰도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 ‘결혼불안정성’(종속변수) 유무와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결혼불안정성’ 척도값을 평균값을 중심으로 다시 이분화(평균값 미만, 평균값 이상)하여 더미변수(0, 1)로 재코딩하여 이분형 로지스틱 분석에 투입하였다.

2) 사회적 고립감

Vincenzi & Grabosky(Fisher & Corcoran, 2000:206-210)의 정서적 사회적 고립감(emotional, social aspects of loneliness and isolation, ESLI) 척도내용을 참조하여 척도문항(8개)을 구성하였다. 척도문항 내용은 친한 친구, 이성친구, 생각을 나눌 사람,

타인에게 자신의 존재감 및 필요성 등에 대한 정서적 느낌과, 자신을 사회집단 및 조직의 일부로 인식하는 정도, 주변사람과 공동화제를 갖는 정도, 자신에 대한 타인의 관심, 혼자시간을 보내는 생활 등에 관한 생각을 묻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4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때때로 그렇다, 3=자주 그렇다, 4=항상 그렇다)이며 척도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고립감 정도가 심하다. Cronbach's α 값은 .70이다.

3) 지각된 스트레스

Cohen, S. K.와 Mermelstein, R.(1983)이 고안한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Perceived Stress Scale:PSS)를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있는데, 개인의 일상생활을 위협하거나 대처를 요구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인지상태를 측정하는 도구이다. 5점 척도(1=전혀없었다, 5=상당히 자주 있었다)이며 척도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고립감 정도가 심하다. Cronbach's α 값은 .782이다(서초구립 반포종합복지관, 서울대학교 실천사회복지연구회(2006:169-172).

4) 스트레스 대처방식

Holmes 와 Rahe(1967)가 최근의 경험을 측정(Schedule of Recent Experience:SRE)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원인(personal stress source inventory), 스트레스 영향(stress effects inventory), 스트레스 대처방법(personal behavioral analysis)등 세 가지 척도를 고안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대처방법 척도내용을 참조하여 '긍정적 대처'와 '부정적 대처'를 평가할 수 있는 두 개의 척도를 만들었다. 본 연구에서는 Holmes와 Rahe(1967:213-218)의 척도를 김은숙(1998:24)이 번안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내용(서초구립 반포종합복지관, 서울대학교 실천사회복지연구회(2006:126-131)를 참조하였다.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평가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들에게 스트레스 상황에서 유익하지 못한 방식(과식, 음주, 흡연, 약물복용, 폭력, 혼자철회 등)으로 대처하는지를 평가하는 '부정적 대처'(6개문항)와 보다 적응적인 방식으로 대처(친교, 취미생활, 가족 및 친구와 의논, 운동, 독서 등)를 하는지를 묻는 '긍정적 대처' 척도(5개문항)를 함께 사용하였다. '긍정적 대처척도'와 '부정적 대처척도'는 모두 4점 척도(1=그런 적이 없다, 2= 가끔 그렇다, 3=때때로 그렇다, 4=자주 그렇다)로 척도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성향이 강하다. 긍정적 척도와 부정적 대척척도의 Cronbach's α 값은 각각 .782, .609이다.

5) 종교단체의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를 물질적 지지, 정서적 지지 그리고 정보적 지지 등 세 영역에서 평가한 여러 선행연구(Henandez, 1993; 박현선, 1998; 구은경, 2006; 윤정주, 2004; 이경매, 2004)를 참조하여, 본 연구에서는 교회 및 사찰 등으로부터 이주노동자들이 받는 지원을 물질적, 정서적, 정보적 지지 등 세 기능적 측면에서 각각 1문항씩 구성하였다. 5 점 척도(1=전혀 못받는다~5=대단히 잘 받는다)로 척도점수가 높을수록 지지수준이 높다. Cronbach's α 값은 .909로 문항 간의 내적 일치도에 기초한 신뢰도가 대단히 높다.

6) 인구사회학적 배경변수

‘성별’, ‘연령’, ‘학력’, ‘체류기간’, ‘체류자격’ 등 인구사회학적 배경변수(5개)를 통제변수로 선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별’(0=남성, 1=여성)과 ‘체류자격’(0=합법, 1=불법)은 더미변수이다. ‘학력’은 학력수준(1=중졸이하, 2=고등학교, 3=대학교, 4=대학원)별로, ‘연령’은 연령대(1=20대 미만, 2=20세-30세미만, 3=30세-40세 미만, 4=40세-50세 미만)별로 구분하여 각각 4점 척도로 사용하였다. ‘체류기간’은 응답자들이 설문지에 월별 단위로 기재한 체류기간을 다시 6 단계(1=6개월 이하, 2=7개월-12개월, 3=13개월-24개월, 4=25개월-36개월, 5=37개월-48개월, 6=49개월 이상)로 구분하여 6점 척도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3. 분석방법

종속변수인 ‘결혼불안정성’과 주요 독립변수(5개)인 ‘사회적 고립감’, ‘스트레스’, ‘긍정적 대처’, ‘부정적 대처’, ‘사회적지지’ 수준을 평균값과 빈도분석을 토대로 기초통계량을 <표2>와 <표3>에서 제시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배경변수인 5개의 통제변수인(‘연령’, ‘성별’, ‘학력’, ‘체류기간’, ‘체류자격’)에 대해서도 평균값(표2)과

빈도분석(표1)을 제시하였다. 종교배경(기독교, 불교, 무교)에 따른 ‘결혼불안정성’과 ‘사회적지지’수준은 일원배치 평균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각 집단 간 차이비교는 SNK 방법을 선택하였다.

종속변수(이분변수)인 ‘결혼불안정성’에 주요 독립변수들(5개)과 통제변수(5개)가 미치는 영향을 승산비(odds)로 제시하기 위해서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에 각 독립변수의 효과(영향력)에 대한 설명은,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승산비에 근거하여, 독립변인 1 단위 증가에 따른 종속변수의 승산의 증가배수를 중심으로 해석하였고, 각 모형에 대한 회귀식도 제시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발생사건(결혼불안정성)이 가능성을 크게 하는 우도(likelihood)를 최대화하는데 있어, 관찰된 우도가 높을 때 독립변수가 포함된 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전체적인 적합도는 Hosmer와 Lemeshow 적합도 검증(Goodness-of-Fit Test)에서 χ^2 값을 토대로 평가하였다. 설정한 모델의 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어떠한 모수가 추정의 관측결과가 일어날 가능성을 의미하는 우도(likelihood) 값을 이용한 -2LL 값을 제시하였다.

IV. 결과

1. 기초통계분석

본 연구분석에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들의 평균값, 최소값 그리고 최대값은 <표2>에서 제시된 바와 같다. 각 변수의 왜도 및 첨도를 살펴본 결과 정규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 변수들의 특성을 평균값(표2) 및 빈도분석(표3)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결혼불안정’척도의 평균값(.3653)을 기준으로 평균값 이상과 미만으로 나누어 결혼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집단과 결혼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응답자의 약 36.5%가 결혼불안정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이 결과는 Edwards, Jonson, & Booth(1987)가 척도점수를 근거로 하여 이혼경향성 유무를 제시한 분류기준 결과와도 상당히 유사하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불안정’ 유무에 유의미한 관련변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분형 로지스틱 분석을 하기 위해서 ‘결혼불안정’ 척도값의 평균값을 중심으로 2집단(집단1=결혼안정집단, 집단 2=결혼불안정집단)으로 구분하여 이 두 집단 중에 어느 집단에 속할 것인지에 대한 승산비로 밝혔다. 응답자들의 ‘사회적 고립’수준의 평균값(1.77)은 ‘때때로 그렇다’(2점)에 다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사회적 고립감’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13.2%에 불과하였다. ‘때때로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63.4%로 가장 많았지만, ‘자주 그렇다’ 또는 ‘항상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도 20.7%나 되어 적지 않은 제한 몽고이주노동자들이 ‘사회적 고립감’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연구문제 1).

〈표2〉 주요변수 평균 및 기초 통계량 (N= 167명)

변수명	척도의 최소·최대값		평균	SD	왜도		첨도	
	통계량	SE			통계량	SE		
결혼불안정	0	1	.365	.483	.565	.188	.432	.374
종교단체의 사회적 지지	1	5	2.674	.768	-.021	.188	-.748	.374
물질적 지지	1	5	2.433	.809	.297	.188	-.122	.374
정서적 지지	1	5	2.771	.837	.121	.188	-.230	.374
정보적 지지	1	5	2.816	.821	-.182	.188	-.300	.374
사회적 고립	1	4	1.770	.623	1.073	.188	1.580	.374
부정적 대처	1	4	1.665	.515	1.526	.188	3.689	.384
긍정적 대처	1	4	2.374	.677	-.053	.188	-.323	.374
지각된 스트레스	1	5	2.837	.508	.320	.188	1.591	.374
성별	0	1	0.340	.474	.704	.188	-1.523	.374
연령	1	4	2.180	.574	.375	.188	.691	.374
학력	1	5	3.450	.789	.058	.188	.376	.374
체류기간	1	6	2.225	1.122	1.043	.188	1.120	.374
체류자격	0	1	.168	.3747	1.795	.188	1.238	.374

‘지각된 스트레스’(평균값, 2.837) 수준은 ‘가끔 있었다’(3점) 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지각된 스트레스가 ‘전혀 없었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고, ‘가끔 있었다’라고 응답한 경우(62.9%)가 가장 많았다. ‘자주’ 또는 ‘상당히 자주’ 스트레스를 지각하고 있는 사람이 약 29.3%로 밝혀졌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응답자들의 ‘부정적 대처’ 수준(1.67) 보다는 ‘긍정적 대처’수준(2.37)이 상대적으로 높다. 스트레스를 비교적 긍정적인 방식으로 ‘자주’ 또는 ‘때때로’ 대처하고 있는 응답자들이 약 64.6%인 반면, 스트

레스를 부정적인 방식으로 ‘자주’ 또는 ‘때때로’ 대처하는 응답자는 16.2% 정도이다. ‘가끔’이라도 부정적인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대처를 하는 경우가 약 76.6%나 되어 다수의 몽골 기혼 이주노동자들이 비록 빈도에서 차이는 있지만 유익하지 못한 부정적인 방식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연구문제 1).

〈표3〉 주요변수 빈도 (N= 167명)

변수	항목내용	빈도	%
결혼불안정	결혼안정	106	63.5%
	결혼불안정	61	36.5%
종교단체의 사회적지지 (물질, 정서, 정보)	전혀 못받는다	23(32,25,26)	13.8(19.2,15,15.6)
	거의 못 받는 편이다	14(36,15,15)	8.4(21.6,9,10.2)
	조금 받는다	45(44,39,47)	26.9(26.3,9,10.2)
	꽤 받는다	55(35,45,47)	32.9(21,26.9, 28.1)
	대단히 많이 받는다	30(20,43,30)	18(12.25,7,18)
사회적 고립	전혀 그렇지 않다	22	13.2
	때때로 그렇다	106	63.4
	자주 그렇다	34	20.4
	항상 그렇다	5	3
긍정적 대처	그런 적이 없다	11	6.6
	가끔 그렇다	48	28.7
	때때로 그렇다	82	49.1
	자주 그렇다	26	15.6
부정적 대처	그런 적이 없다	12	7.2
	가끔 그렇다	128	76.6
	때때로 그렇다	24	14.4
	자주 그렇다	3	1.8
지각된 스트레스	전혀 없었다	0	0
	거의 없는 편이다	13	7.8
	가끔 있었다	105	62.9
	자주 있었다	46	27.5
	상당히 자주 있었다	3	1.8

종교단체(교회, 사찰)로부터 지원받는 ‘사회적 지지’ 척도의 점수는 2.6735(5점 척도)이었는데, 이는 사회적 지지를 ‘좀 받는다’(3점) 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 재한 몽골 기혼이주노동자들이 종교단체로부터 지원받는 사회적 지지를 각 기능적 측면(정서, 정보, 물질)에서 살펴보면, ‘정보적 지지’(2.816)와 ‘정서적 지지’(2.771)에 비해서 ‘물질적 지지’(2.434)는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이다. 종교단체로부터 전혀 사회적 지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약 13.8%에 불과하여 상당수(86.2%)의 재한 몽골 이주노동자들이 종교단체에서 어떤 형식이든지 사회적 지지를 받은 경험이 있음을 알 수 있다(연구문제 1). 앞서 <표1>에서 조사응답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았을 때 종교가 없는 응답자는 27.5%이었다. 그러나 종교단체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약 13.8%에 불과하여, 비록 특정 종교를 가지지 있지는 않지만, 적지 않은 재한 몽골이주노동자들(약 13.7%)이 교회나 사찰 등으로부터 어떤 형태든지 지지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종교배경별 결혼불안정 및 사회적 지지수준

종교배경(기독교, 불교, 무교)에 따른 ‘결혼불안정성’ 및 ‘사회적지지’ 수준을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는 <표4>에서 제시된 내용과 같다. 종교가 ‘불교’(444) 또는 ‘무교’(435)라고 응답한 사람에 비해서 종교가 ‘기독교’(320)인 경우, 결혼불안정 척도점수가 낮았지만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사회적 지지’의 척도값은 ‘기독교’(2.832)를 믿는 응답자들이 ‘불교’(2.415) 또는 ‘무교’(2.420) 경우보다 다소 높았지만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성(P. 05기준)이 뒷받침되지 않았다(표4). 사회적지지 척도를 구성하는 세 하위척도(물질적지지, 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중에서 ‘정서적 지지’의 경우에는 종교가 기독교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불교 및 무교라고 응답한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척도값이 높았고, 이러한 차이는 집단 간 차이 검증(SNK)에서 유의도 .05수준에 거의 근접한 .051 수준에서 인정되었다. 재한 몽골이주노동자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정서적지지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엿볼 수 있어 재한 몽골이주노동자들을 위해서 지역의 교회가 불교사찰보다 좀 더 적극적인 지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응답자들 중에서 약 61.7%가 종교가 기독교라고 응답한 사실을 고려해 볼 때(표1 참조), 재한 몽골 이주노동자들은 본국에서와 달

리, 한국생활에서는 지역의 교회에 많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교회로부터 정서적 지지, 정보적지지 혹은 물질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작용된 것으로 추론된다. 본 연구결과는 교회에서 지원하는 사회적 지지가 제한 몽골 이주노동자들이 지원받는 사회적 지지의 중요한 측면임을 시사해준다.

〈표4〉 종교배경별 결혼불안정과 종교단체의 지지수준비교 (N= 167명)

변수 \ 종교	a. 기독교(N=103)		b. 불교(N=18)		c. 무교(N=46)		P.	SNK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결혼불안정	.320	.469	.444	.511	.435	.501	.314	.
종교단체지지	2.832	.714	2.415	.805	2.420	.791	.056	N.S
물질적 지지	2.592	.778	2.156	.808	2.434	.809	.058	N.S
정서적 지지	2.948	.785	2.489	.908	2.487	.831	.051	N.S
정보적 지지	2.955	.744	2.600	.920	2.587	.893	.140	N.S

3. 결혼불안정성 관련요인

제한 몽골 이주노동자들의 ‘결혼불안정성’ 유무에 유의미한 관련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분형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독립변인(5개)과 함께 통제변수(5개)를 투입한 초기모형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인만 선정한 최종모형을 함께 <표5>에서 제시하였다.

결혼불안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은 ‘사회적 고립’, ‘사회적지지’, ‘성별’, ‘연령’, ‘체류기간’ 등 5개 변수가 선정되었다. ‘지각된 스트레스’ 스트레스 상황에서 ‘긍정적 대처’ 및 ‘부정적 대처’가 제한 몽골 이주노동자들의 결혼불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연구문제 3, 4, 5). 몽골 이주노동자들의 ‘사회적 고립감’이 한 단위 증가할 때 결혼이 불안정하게 될 승산비(odd ratio)는 2.0685배씩 증가하고, 종교단체로부터 ‘사회적 지지’가 한 단위씩 증가할 때, 결혼을 불안정하게 될 승산비는 약 1.125배씩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남성보다 여성의 경우 약 2배 가량 결혼불안정성이 감소되고, ‘연령’이 한 단위씩 증가하면 결혼이 불안정하게 될 승산비는 약 2.269배 감소한다. ‘체류기간’이 한 단위씩 증가할 때, 결혼이 불안정하게 될 승산비는 약 1.742배씩 증가한다(연구문제 6).

분석결과를 토대로 결혼불안정성 유무 예측모형을 식으로 기술해보면 다음과 같다.

- 이주노동자들의 결혼불안정성 유무 예측모형

$$\log \{p\} = \log \{e\} (\text{결혼불안정가능성 있음} / (1 - \text{결혼불안정가능성}))$$

$$= .300 + 0.730(\text{사회적 고립감}) - .118(\text{사회적지지}) - .713(\text{성별}) - .827(\text{연령}) + 0.555(\text{체류기간})$$

〈표5〉 이분형 로지스틱 및 선형 회귀분석 결과 (N= 167명)

초기 모형	이분형 logistic 회귀분석					
	B	S.E	Walds	df	P.	Exp(B)
종교단체의 사회적 지지	-.157	.055	7.987	1	.005	.855
사회적 고립	.671	.315	4.525	1	.033	1.956
부정적 대처	.228	.390	.341	1	.559	1.256
긍정적 대처	.491	.289	2.895	1	.089	1.635
지각된 스트레스	.500	.441	1.287	1	.257	1.648
성별	-.652	.409	2.542	1	.111	.521
연령	-.830	.360	5.322	1	.021	.436
학력	-.302	.239	1.599	1	.206	.739
체류기간	.751	.280	7.198	1	.007	2.119
체류자격	-.946	.546	2.998	1	.083	.388
상수항	-1.368	1.860	.541	1	.462	.255
최종 모형	이분형 logistic 회귀분석(후진 단계 선택)					
	B	S.E	Walds	df	P.	Exp(B)
종교단체의 사회적 지지	-.118	.049	5.718	1	.017	.889
사회적 고립	.730	.288	6.422	1	.011	2.075
성별	-.713	.387	3.392	1	(.066)	.490
연령	-.827	.354	5.447	1	.020	.437
체류기간	.555	.257	4.678	1	.031	1.742
상수항	.300	.963	.097	1	.743	1.350
모형	분류 정확도	-.2log 우도		Cox & Snell의 R ²		Nagelkerke R ²
초기모형	70.1%	189.256		.164		.225
최종모형	70.7%	197.619		.121		.166

이러한 분석결과는 몽골 기혼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사회적 고립감’이 이들의 결혼을 불안정하게 하는데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입증해 준다. 종교단체로부터 제공되는 정서적, 정보적, 물질적 사회적 지지가 재한 몽골 기혼 이주노동자들의 결혼불안정성을 감소시키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

로 규명하였다. ‘사회적 고립감’을 많이 느끼고, 종교단체로부터 정서적, 정보적, 물질적 지지 등을 잘 받지 못하고, 비교적 젊고, 체류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남성일 경우, 결혼불안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험군(risk group)으로 간주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V. 논의

본 연구의 특성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분석에서 얻은 주요 발견점 및 시사점을 논의하면서 실천적·정책적 함의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그리고 특성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주노동자들에게 가족동반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우리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배우자 및 자녀와 분거생활을 하는 몽골 기혼이주노동자들의 결혼불안정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들의 결혼불안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요인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지금까지 제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연구가 직장 및 일상생활 실태 및 적응 등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었고, 기혼 이주노동자들의 결혼불안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제한 몽골 기혼이주노동자들의 결혼불안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사회적 고립감’, ‘스트레스’,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긍정적 대처’와 ‘부정적 대처’ 그리고 종교단체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를 주요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성별’, ‘연령’, ‘학력’, ‘체류기간’, ‘체류자격’ 등 5개의 통제변수를 함께 선정하여 이분형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을 몽골이주노동자들에 초점을 둔 것은, 첫째, 한국노동시장 유입에서 후발주자인 몽골이주노동자들은 이미 자치조직(필리핀 공동체, 네팔 자문위원, 방글라데시 협회 등)을 구축한 다른 나라 이주노동자들에 비해서 사회관계망 및 사회지지체계가 상대적으로 빈약한 취약집단이고, 둘째, 최근 몽골사회에서 이주노동자들의 결혼체제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몽골정부는 이미 한국정부에 몽골 기혼 이주노동자들의 가족결합권을 요구한 바 있지만, 한국 한국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현실에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강제된 분거생활을 하는 제한 몽골 기혼이주노동자

들의 결혼불안정성 문제를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가족결합권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정부의 이주정책의 문제점을 한층 더 부각시키기 위해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자료분석 결과 밝혀진 주요 발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한 몽골기혼이주노동자들은 적어도 세 명 중에 한명이 결혼불안정(평균, .3653)으로 인해 결혼해체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많은 재한 몽골 기혼 이주 노동자들이 ‘사회적 고립감’(평균, 1.77), ‘스트레스’(2.837)를 경험하고 있다. ‘사회적 고립감’을 ‘자주’ 또는 ‘항상’ 느끼고 있는 응답자들이 20.7%나 되었고, ‘스트레스’를 ‘자주’ 또는 ‘상당히 자주’ 받고 있다고 밝힌 사람도 29.3%가 되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정적으로 대처(예: 과식, 음주, 흡연, 약물복용, 폭력, 혼자만 있음)를 하는 경우(평균, 1.67)보다는 긍정적으로 대처(친교, 취미생활, 가족 및 친구와 의논, 운동, 독서 등)를 하는 경우(평균, 2.37)가 더 많았지만, 약 76.6%의 응답자들이 ‘가끔’ 이라도 부정적인 방식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있고, 약 16.2%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정적인 대처방식을 ‘때때로’ 또는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표2, 3, 연구문제 1).

둘째, 재한 몽골 기혼이주노동자들이 종교단체로부터의 ‘사회적 지지’수준(평균, 2.6735)은 ‘좀 받는다’(3점)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 대다수(86.2%)가 어떤 형태(정서, 정보, 물질적지지)이든지 다소 간의 지지를 종교단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종교를 가지지 않고 있는 재한 응답자들(27.5%) 중에서도 약 절반 가량(13.7%)은 종교단체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종교배경별 사회적 지지수준을 비교해 본 결과, 종교가 기독교인 경우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사회적지지수준이 불교 및 무교인 경우보다 척도값 자체는 더 높았지만,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정서적 지지의 경우에는 기독교인(2.9476)들이 불교(2.4889) 및 무교(2.4870)인 경우에 비해 다소 높은 현상(유의도, .051 수준)이 었 보였다(표4, 연구문제 2).

셋째, 로지스틱 분석결과, 재한 몽골 기혼이주노동자들의 결혼불안정성을 발생시키는데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요인으로는 ‘사회적 고립감’, 종교단체로부터의 ‘사회적 지지수준’, ‘성별’, ‘연령’, ‘체류기간’ 등이 선정되었다. 재한 몽골 기혼 이주노동자들의 결혼불안정성을 발생시키는데 지각된 ‘스트레스’, ‘긍정적 대처’, ‘부정적 대처’, ‘학력’, ‘체류자격’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표5, 연구문제 3, 4, 5, 6). 비록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양식’이 결혼불안정성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가지지는 않았지만, 간접효과를 가질 수 있어 후속연구에서 이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사회적 고립감’이 한 단위 증가할 때, 결혼이 불안정하게 될 승산비는 약 2.075만큼 증가하였고, 종교단체로부터 ‘사회적 지지’가 한 단위씩 증가할 때, 결혼이 불안정하게 될 승산비는 약 1.125배씩 감소하였다(표5, 연구문제5). 여성은 남성보다 결혼불안정성이 약 2배 이상 적고, ‘연령’이 한 단위 증가할 때 결혼이 불안정하게 될 승산비는 약 2.29만큼 감소하였다. ‘체류기간’은 한 단위씩 증가할 때, 제한 몽골 기혼 이주노동자들의 결혼이 불안정하게 될 승산비는 약 1.742배 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표5, 연구문제6).

전술한 주요 발견점을 토대로 시사점과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모색하고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제한 몽골 기혼이주노동자들 중에 약 1/3 이상이 결혼생활이 해체될 가능성이 높은 위험집단으로 드러났고, ‘체류기간’이 결혼불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이는 기혼 이주노동자들이 배우자와 분거생활이 길어질수록, 결혼불안정성이 크게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배우자 및 자녀와 분거생활을 강제당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우리정부의 정책이 기혼 이주노동자들의 결혼불안정성을 야기시키는 위험요인임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유엔총회(1990. 12.8)에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2003년 7월 발효하였고, 45개국이 비준하고 31개국이 서명을 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11.10:87). 기혼 이주노동자들의 가족결합권 허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우리정부의 진지한 고민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산업체들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국내노동자들이 기피하는 3D 업종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면서 우리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경제적 효용성에만 관심을 가지고, 기본적인 육구인 기혼 이주노동자들의 가족결합권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배우자 및 자녀와 분거생활을 강제당하고 있는 제한 기혼이주노동자들의 인권에 대한 배려가 결여되어왔다. 제한 이주노동자들이 우리사회에 지속가능한 양질의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이들이 한국생활에 잘 적응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지원은

강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결과는 기혼 이주노동자들은 경제적으로 좀 더 안정되어 가족과 좀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선택한 이주노동자의 삶이 오히려 강제된 분거생활로 인해 결혼생활을 해체시킬 수 있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합법적인 기혼 이주노동자들에게는 가족 동반을 허용하는 정책 입안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적어도, 본국의 배우자가 한국을 자유롭게 방문하고 일정기간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주노동자들이 우리사회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고립감’ 수준이 이들의 결혼불안정성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주노동자들의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시키기 위한 우리사회의 노력은 이들을 우리사회에 잘 적응하게 하고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기혼 이주노동자들의 결혼불안정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연구과제이다. ‘사회적 고립감’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한국인들의 차별적인 시각이 변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언어와 문화가 다른 타국에서 이방인으로 생활하고 있는 이들에게 양질의 사회적 지지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종교단체로부터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가 재한 몽골 기혼이주노동자들의 결혼불안정성을 감소시키는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로 기여하고 있음은 자료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입증되었다. 지역의 종교단체로 부터의 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종교가 기독교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불교 또는 무교인 경우보다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정서적 지지’의 경우에는 기독교인들이 상대적으로 더 양호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선교와 지원을 하고 있는 지역의 교회가 이주노동자들에게 지원하는 사회적 지지가 재한 몽골 기혼이주노동자들의 결혼불안정성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재한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참여하는 교회와 지역의 유관기관(종합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은 상호연계하여 기혼 이주노동자들의 결혼불안정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결혼불안정 위험이 높은 위험집단(risk group)을 사전에 찾아내어 이들의 결혼해체를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 시급한 과제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결혼불안정성이 높은 집단의 특성으로 밝혀진 비교적 젊고, 분거기간이 길고, 사회적 고립감이 높고, 종교단체로부터 사회적 지지

수준이 낮은 제한 기혼이주노동자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개입해야 할 표적집단(target group)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교회가 제공하는 사회적 지지가 기혼 이주노동자들의 결혼불안정성을 감소시키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이 실증적으로 입증되어,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지역교회의 관심과 지원이 강화되고, 종교기관(단체)과 지역의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지원이 기혼이주노동자들의 결혼해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주요 발견점은 기혼이주노동자들의 결혼해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의미있는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제공해 주어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지만 몇가지 명백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기혼 이주노동자들의 결혼불안정성을 탐색함에 있어서, 본국에 있는 배우자를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결혼불안정성은 자신과 배우자와의 상호작용적 맥락에서 이해하여야 한다. 배우자의 인식을 함께 고려하지 못한 것은 한계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둘째, 자료분석 방법으로 이분형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밝힐 수는 있었지만 인과관계에 대한 규명에는 한계가 있으며 간접효과에 대한 탐색도 간과되었다. 셋째, 표본이 전국수준에서 선정되었지만, 무작위 표집이 아닌 임의표집이라는 것도 본 연구가 지닌 제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본 연구가 지닌 한계점을 보완한후속연구를 기대하는 바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구은경 (2006). “외국인 노동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울여자대학교.
- 국가인권위원회(2011.10).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 김경화 (2010). “재미 기러기어머니의 적응과정에 관한 근거이론적 접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4). 211-239.
- 김상대 · 송석훈 · 이상진 · 하태영 · Kuan-PinLin (2001). “한국, 독일, 미국 기업의 직장인 음주대책 비교연구(1).” 한국인사관리학회 춘계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
- 김선화 (2005). “외국인노동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 김선헤 (1999).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김시연 · 서영석 (2010). “스트레스, 배우자지지, 결혼만족 간 관계: 자기효과 및 상대방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2). 189-213.
- 김신정 · 이순희 · 김숙영 · 김애리 · 박현태 · 이영주 (2008). “이주노동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 『성인간호학회지』. 20(5). 791-803.
- 김양호 · 김태현 (2009). “장기분거 가족에 대한 일 연구:기러기 가족의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3). 297-326.
- 김옥수 · 백성희 (2003). “노인의 외로움과 사회적지지, 가족기능간의 관계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33(3). 425-432.
- 김은숙 (1998). “만성정신장애인에 대한 스트레스 대처능력 프로그램 활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카톨릭대학교.
- 김은정 (2001). “외국인노동자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김지선 (2006). “경남지역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 김현경 (2009). “이주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 『산업경제연구』. 22(1). 385-409.
- 김희년 · 정미숙 (2004). “지역사회복지시설 이용노인들의 여가활용실태 및 활성화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6. 263-285.
- 몽크나롱, 라우 · 진미정 (2010). “한국에 거주하는 몽골 노동자의 분거 부부관계 경험.”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5(2). 31-48.
- 민성길 · 이창일 · 김광일 · 서신영 · 김동기 (2000). “한국판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간편형 척도(WHOQOL_BREF)의 개발.” 『정신의학』. 39(3). 571-579.
- 바야르마 (2008). “제한 몽골노동자의 고용 및 생활실태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 박경민 · 이민규 (2005). “대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및 음주동기가 음주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0(3). 277-293.
- 박바름 · 김석호 · 김병수 (2011). “삼자관계와 사회적 고립이 준법의식과 뇌물공여행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45(2). 176-202.

- 박부진 (2004). “성의 억압과 부부관계: 일제 시기 농촌의 신혼생활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37(1). 41-72.
- 박연환·강희선 (2008). “복지회관 이용 노인의 사회적 고립감 예측요인.” 『한국간호학회지』. 38(5). 712-719.
- 박현선 (1998). “빈곤 청소년의 학교 적응유연성(Resilience) 발달메커니즘.” 『청소년학 연구』. 5(3). 147-165.
- 박형기 (2004). “외국인근로자의 근로 및 사회적 조건과 심리적 적응.”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박황훈 (2002). “외국인 노동자들이 문제데 대한 교회 가르침.” 석사학위논문. 대구 카톨릭대학교.
- 서경현·김성민 (2009).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문제음주의 관계에서의 자아탄력성의 역할.” 『한국알코올과학회지』. 10(2). 21-34.
- 설동훈 (1996).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설동훈 (2001).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인권 실태와 대책”. 『인권과 평화』. 2(1). 성 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 53-87.
- 설동훈 (2003). “한국사회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손애리 (2010).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스트레스, 우울 및 문제음주 간의 관련성 연구.” 『보건과 사회과학』. 27. 61-79.
- 신성자·정숙희 (2010). “교사가 지각하는 학교업무환경과 학생의 개인특성이 신체적, 비신체적 또래폭력 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19. 142-172.
- 오통도람, 미지도철(Mijed-Ochir Otgndulam) (2011). “근로조건과 사회적 지지가 몽골노동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 윤미혜·신희천 (2009). “일상사건의 공유를 통한 부부의 친밀감 발달과정: 지각된 배우자 반응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1). 17-32.
- 윤영희 (2011). “외국인 근로자의 심리적 안녕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 윤정주 (2004). “외국인 근로자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카톨릭대학교.
- 이경매 (2003). “한국거주 불법신분 조선족들의 정신건강 및 삶의 질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이민규 (1993). “음주행동과 관련된 심리사회적 요인.” 『한국 심리학회지: 임상』. 12(1). 165-179.
- 이성은 (2006). “한국 기혼남녀의 섹슈얼리티와 친밀성의 개념화.” 『가족과 문화』. 18(2). 1-36.
- 이수영 (2006). “직장인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한국알코올과학회』. 7(2). 113-136.
- 이인선 (2004).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외국인 노동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관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이주연·김해숙·신희천·최진아 (2011).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여가생활 변화

- 인식과 삶의 만족감에 대한 연구.” 『한국여가레크레이션학회지』, 35(4), 83-97.
- 장세진 (1992).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 사무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정기선 (1996). “국내 외국인 취업자의 사회심리적 적응.” 『1996 한국사회학회 후기 사회학대회 발표문 요약집』, 한국사회학회.
- 정은희 (2005). “이주노동자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 차츠랄 (Tstsral B.) (2003). “재한 몽골 근로자의 고용실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 최미영 (2003). “사회적 낙인이 화장장애인의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최양숙 (2006). “부부분거경험의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본 기러기가족현상.” 『가족과 문화』, 18(2), 37-65.
- 최재윤 (2011). “외국인노동자의 무료진료 및 2차 진료실태에 관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2011.10), 301-338.
- 홍진주 (2004). “몽골출신 이주노동자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Adams, K .B., Sanders, S. and Auth, E. A. (2004). “Loneliness and depression in independent living retirement communities: risk and resilience factors.” *Aging & Mental Health* 8(6), 475-785.
- Avison, W. R. and Turner, R. N. (1988). “Stressful life events and depressive symptoms: Disaggregating the effects of acute stressors and chronic strain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9(4), 253-24.
- Andersson, L. (1998). “Loneliness research and interventions: A review of the literature.” *Aging & Mental Health* 2, 264-274.
- Berry, J. W. (1992).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in a new society.” *International Migration* 34, 176-188.
- Brown, S. A., Christiansen, B. A. and Goldman, M. S. (1987). “The alcohol expectancy questionnaire: An instrument for the assessment of adolescent and adult alcohol expectancie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48(5), 483-491.
- Brown, S. A., Goldman, M. S., Inn, A. and Anderson, L. R. (1980). “Expectations of reinforcement from alcohol: Their domain and relation to drinking patter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8(4), 419-426.
- Cobb, S. 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5), 300-314.
- Cohen & Hoberman (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 of lif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2), 99-125
- Cohen, S. K. & Mermelstein, R. (1983). “A global measure of perceived 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4, 385-396.
- Cohen & Wills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 Conger, J. J. (1956). "Alcoholism: Theory, problem and challenge: reinforcement theory and the dynamics of alcoholism." *Quarterly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17. 296-305.
- Cooper, M. L. (1992). "Stress & alcohol use: Moderating effects of gender, coping, & alcohol expectanci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1. 139-152.
- Dorais, Louis-Jacques. (1991). "Refugee adaptation and community structure: The Indochinese in Quebec city, Canada."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5(3). 551-573.
- Edwards, J. N., Johnson, D. R., and Booth, A. (1987). "Coming apart: A prognostic instrument of marital breakup." *Family Relation* 36. 168-170.
- Ennett, S. T., Bailey, S. L. and Federman, E. B. (1999). "Social network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risky behaviors among runaway and homeless youth."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0. 63-78.
- Ennett, S. T. and Bauman, K. E. (1993). "Peer group structure and adolescent cigarette smoking: A social network analysi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5. 226-336.
- Fees, B. S., Martin, P. and Poon, L. W. (1999). "A model of loneliness in older Adults." *The Journal of Gerontology: Series B* 54B(4). 231-239.
- Goodwin, R. & Plaza, S. H. (2000). "Perceived and received social support in two cultures: collectivism and support among british and spanish student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7(2). 282-291.
- Greeley, J. and Oei, T. (1999). *Alcohol and Tension Reduction*. pp.14-53 in Psychological Theories of Drinking and Alcoholism, 2nd Ed.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Griffin, J. & Soskolne, V. (2003).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Thai migrant workers in Israel." *Social Science & Medicine* 57. 769-774.
- Hernandez, L. P. (1993). The Role of Protective Factors in the School Resilience of Mexican American High School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 Hirschi, T. 2002. *Causes of Delinquency*. New Jersey: Transaction.
- Holmes, T. H. and Rahe, R. H. (1967). "The social readjustment of rating scale."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11(2). 213-218.
- Kh. Gundsambuu (2007). *Family Development and Problems in Mongolia*.
- Kuo, W. H. and Tsai, Yung-Mei (1986). "Social networking, hardiness and immigrant's mental health."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7(2). 133-149.
- Montgomery, J. R. (1996). "Components of refugee adaptatio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0(3). 679-702.
- Savikko, N., Routasalo, P., Tilvis, R. S., Strandberg, T. E. and Pitkala, K. H. (2005). "Predictors and subjective causes of loneliness in an aged population."

Archives of Gerontology and Geriatrics 41(3). 223-233.

Victor, C., Scambler, S., Bond, J. and Bowling, A. (2000). "Being alone in later life: loneliness, social isolation and living and living alone." *Reviews in Clinical Gerontology* 10. 407-417.

Vincenzi, H. and Grabosky, F. (1987). "Measuring the emotional/social aspects of loneliness and isolation."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2. 257-270.

ABSTRACT

The Correlates of the Marital Instability of Mongolian Migrant Worker in Korea

– Focusing on Social Isolation, Stress, Coping Pattern and Social
Support –

Sung-Ja Shin (Kyungpook National Univ. Social Welfare Department)

With the increased dependency of immigrant workers' labor on Korean Industry, the major concern of this study consists in:(1) evaluating the marital instability of Mongolian migrant workers; (2) the correlates of 'social isolation', 'stress' 'coping pattern' 'social support from religious organization' 'gender', 'age', 'education', 'length of stay', 'legal status' on the 'marital instability'; (3) the difference of marital instability and social support between Christian and other groups. Research is based on a survey conducted with 167 married Mongolian migrant workers residing in 10 major cities. In order to verify the research questions, binary logistic regression method is conducted.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We find the significant marital instability among Mongolian migrant workers. At least one third of respondents are at the risk of marital dissolution. 'Social isolation' (odds ratio, 2.075), 'social support from religious organization'(.889), 'gender'(.490), 'age'(.437), 'length of stay'(1.742) are significantly related with the marital instability of Mongolian migrant workers. Comparing to other Mongolian immigrant workers with different religious backgrounds, the Christian Mongolian migrant workers seem to receive a relatively higher level of emotional support from church. This implies that the significance of Church's roles in terms of being able to decrease the marital instability of Mongolian immigrant workers.

Some poli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are suggested based on the findings.

Key Words: migrant workers, Mongolian, marital instability, social isolation, social support, stress, coping pattern, religious organization, church, transnational couple